

상담회기 평가 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의 타당화 연구

이상희 김계현

(서울대 교육학과)

본 연구는 상담회기 평가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의 국내 활용을 위한 타당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SEQ는 국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번안,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원본과의 차이가 많고, 타당도 정보도 다소 부족하여 원본에 충실한 번안과 재타당화 연구가 요구되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현장의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SEQ 문항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와 내담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복수사례-다회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 및 강원지역의 5개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수집한 165회기중 분석에 포함된 상담회기는 108회기였다. 이 중에는 10명의 상담자와 28명의 내담자가 포함되어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한 결과, 상담시간 평가부분에서 깊이와 순조로움 요인이, 상담직후 정서부분에서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 요인이 밝혀졌다. 영어판 SEQ Form 4 (Stiles, 1989)와 비교해 볼때 각성도에서 한 문항이 제외된 것외에는 동일한 문항들로 요인이 구성되었다. 둘째, 변량원 분석결과, 상담자나 내담자 간의 특성 차이 보다는 회기간의 차이로 인해 SEQ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Q가 회기마다 변화하는 어떤 것을 재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깊이와 순조로움이 내담자에게는 뚜렷이 구분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자는 깊이있는 상담후에 각성되고, 내담자는 순조롭지 못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상담후에 각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성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성도가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상담자의 긍정적 정서가 내담자의 회기평정을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상담연구에서는 상담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 회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최종적 성과(ultimate or final outcome) 외에 매 상담 회기마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즉시적 성과(immediate outcome)의 측정도 필요로 하고 있다(Greenberg, 1986; Rosen & Proctor, 1981). 즉시적 성과란 특정 개입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각 회

기내의 효과를 의미하며(Greenberg, 1986), '하위성과(suboutcome)' 혹은 '과정목표(process goal)'로 보기도 한다(Rice & Greenberg, 1984). 즉시적 성과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Elliott, 1985). 하나는 상담자의 각 반응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즉시적인 치료효과(immediate therapeutic impact)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이 끝난 직후 특정 회기가 참여자에게 미친 회기의 영향력(session impact)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후자를 전자와 구별하여 회기성과(session outcome)라 하기도 한다(Hill, Helms, Tichenor, Spiegel, O'Grady, & Perry, 1988).

회기성과는 바람직한 상담성고를 가져오는 과정 목표로서, 상담에 대한 만족도,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호의적인 지각, 상담시간 자체에 대한 느낌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담과정과 상담성고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회기성고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내담자의 만족도(Larsen et al., 1979), 상담자의 전문성, 신뢰성, 호감성을 측정하는 상담자 평정 질문지(CRF; Corrigan & Smith, 1983), 심리치료회기 보고서(TSR; Orlinsky & Howard, 1975), 상담회기가 끝난 후에 상담시간에 대한 평가와 느낌을 묻는 상담회기 평가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이하 SEQ라 함; Stiles, 1980; Stiles & Snow, 1984a, b; Stiles, 1989) 등이 있다. 회기성과의 여러가지 측정 방법 중에서 SEQ는 많은 연구에서 회기의 즉시적 영향력을 재는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강신덕, 1991; 김인규, 1992; 김정옥, 1990; 문형춘, 1993; 신혜경, 1991; 오경희, 1986; 이동귀, 1992; 정은정, 1991; 최윤미, 1987; 홍경화, 1991; Friedlander, Thiboudeau, & Ward, 1985; Nocita & Stiles, 1986; Stiles, Shapiro, & Firth-Cozen, 1988).

SEQ는 Stiles를 주축으로 개발되었는데, 현재 형태인 Form 4는 3차의 개정작업을 거친 것이다. SEQ는 원래 집단상담에서 각 상담회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집단상담 회기의 차

원을 밝히고, 이들 차원의 변화에 따라 집단상담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Stiles, Tupler, & Carpenter, 1982). 그 이후 개인 상담회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SEQ Form 2를 구성하였다(Stiles, 1980). SEQ Form 3(Stiles & Snow, 1984a, b)와 Form 4(Stiles, 1989)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정서차원이 단극적(monopolar)이기 보다는 양극적(bipolar)이라는 Russell(1979)의 가정에 따라, 상담직후 정서부분에 긍정적 정서에 대비되는 각성도(arousal)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형태인 SEQ Form 4는 모두 24개의 양극형용사쌍이 7단계 척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상담시간 평가부분과 상담직후 정서부분이 각각 12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SEQ를 통해 측정되는 회기 영향력의 차원은 회기의 '깊이'와 '순조로움'이라는 상담시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상담후의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라는 상담직후 정서 차원으로 구분된다. '깊이'란 상담 회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회기에서 지각된 힘과 가치, 또는 지각된 상담자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는 과제(task)차원을 나타낸다(Stiles, 1980; Stiles & Snow, 1984a; Stiles, Shapiro, & Firth-Cozens, 1988). 또한 '깊이'는 내담자가 그 회기에서 움직여진 정도, 또 그 회기에서 문혀져 있던 정서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룬것에 대한 지각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Stiles et al., 1990). 반면에 '순조로움'이란 그 회기의 편안함, 안정감, 또는 내담자의 고통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 차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Stiles, 1980; Stiles & Snow, 1984a; Stiles, Shapiro, & Firth-Cozens, 1988).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

호작용이 얼마나 편안하게 지각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회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수준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Stiles et al., 1990).

'긍정적 정서'란 확신과 명확한 느낌 뿐 아니라 두려움이나 노여움이 없는 기쁜 느낌을 말하며, '각성도'란 조용하고 침잠된 느낌과는 대조적으로 활동적이고 흥분된 느낌을 말한다(Stiles & Snow, 1984a). 그러나 상담직후 정서요인은 상담자와 내담자에 따라 불안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구마다 일관된 요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 못해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최윤미, 1987; Friedlander, Thiboudeau, & Ward, 1985).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Q는 두 연구자에 의해 타당화 작업을 거쳤으나(오경희, 1986; 최윤미, 1987)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석의 단위가 되는 SEQ의 각 문항 점수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담현장에서 얻어지는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각 상담회기에서 얻어진 평정 결과는 독립된 것이 아니다. 즉, 각 상담회기에서 얻어진 SEQ의 각 문항점수는 순수하게 그 회기가 가진 영향력뿐만 아니라 특정 상담자와 특정 내담자에 의한 영향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기들에서 얻어진 평정결과는 동일한 조건의 점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SEQ의 각 문항점수에는 상담자간의 차이에 의한 변량원, 내담자간의 차이에 의한 변량원과 순수한 회기간의 차이에 의한 변량원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Sitiles, 1980; 오경희, 1986; 최윤미, 1987)에서는 일회기의 평정이나 한 상담자-한 내담자쌍의 평정에 근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상

담자간 차이, 내담자간 차이, 회기간 차이에 의한 변량원이 혼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순수한 회기영향력의 차원을 밝히기 위한 요인분석이나 SEQ의 각 지수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상관분석은 이러한 상담자나 내담자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고 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SEQ 타당화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회기 평정의 결과가 순수하게 회기의 영향력만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Howard, Orlinsky 그리고 Perilstein (197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회기 평정의 변량은 상담자와 그 상담자의 내담자, 또 그 내담자가 겪은 회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세 변량원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즉 회기를 평정하는데는 순수한 회기 영향력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기여도란 내담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 이를테면 상담자의 인구조학적 특징, 성격특징, 이론적 접근 등 -으로 인해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담자 기여도란 내담자의 개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에 따라 변하는 상담자 특성- 이를테면 다른 사례에 대해 다른 치료적 접근 -으로 인해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회기의 기여도란 매 회기마다 변화하는 어떤 것- 이를테면 상담자의 새로운 개입이나 내담자의 새로운 반응 -으로 인해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Stiles & Snow, 1984).

Stiles(1980)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 효과가 내담자나 회기의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tiles와 Snow (1984a)의 연구에서도 회기평정에는 상담자나 내담자의 변량이 적고, 회기에 의한 변량이

65% ~ 82%로서 비교적 많은 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ll-Standiford, Stiles와 Rorer(1988)의 연구도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나 내담자의 차이보다는 회기간의 차이가 SEQ평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SEQ가 상담자나 내담자에 영향을 덜 받고, 회기마다 변화하는 영향력을 재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좋은 상담 시간(good therapy hour)'은 참여자들이 즉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latent effect)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tiles,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SEQ의 타당화를 위해 세 변량원- 상담자, 내담자, 회기에 의한 변량원 -의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SEQ가 회기마다 변화하는 회기영향력을 재는 것이 타당하다면 상담자나 내담자에 의한 변량보다 회기간의 차이에 의한 변량이 더 많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EQ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을 제거하여, 순수한 회기의 영향력 차원을 밝힌다. 둘째, SEQ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량원 - 상담자 차이, 내담자 차이, 회기 차이 -의 비율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이나 반응경향성과 순수한 회기에 의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짝지어짐으로 인해 SEQ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정한 각 회기의 순수한 회기영향력 차원들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SEQ 각 요인들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도 구

도구는 SEQ Form 4(Stiles, 1989)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번안은 3차례의 번안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 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자 1명, 교육학과 박사과정의 교육상담 전공자 2명,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상담경력 4년의 상담자 1명, 한국에서 6년간 거주하였으며,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미국인 교육학 전공자 1명, 그리고 지도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번안과정에서 우리나라식 표현을 위해 서술형 형용사로 번안하였으며, 가능한한 영어의 형용사가 주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번안한 SEQ Form 4가 적절하게 번안되었는지, 요인구조가 원 형태와 동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하였다. 예비연구의 대상은 3개 대학의 교육학 및 심리학 관련과목의 여학생 145명이었다. 연구방법은 모의연구(analogue study) 형태를 취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진로와 이성문제에 관한 20분짜리 상담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녹음 테이프의 내담자로 생각하고, 녹음테이프의 상담자와 상담을 한다고 가정하고 듣도록 지시하였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축어록을 보면서 녹음 테이프를 들도록 한 후 SEQ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SEQ를 주요인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상담시간 평가부분에서 깊이와 순조로움 요인이 상담직후 정서부분에서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 요인이 확인되었다.

참여자

상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서울

및 강원도의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자 23명(남자 4명, 여자 19명)이었다. 상담자의 연령층은 26세 ~ 37세(mdn=29)이며, 상담실습경력은 1년 ~ 11년(mdn=4)이다. 상담자들은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사업학과에서 교육상담 및 상담심리 분야의 전공자들로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과정 수료자 4명, 박사과정 재학생 5명, 석사학위 소지자 4명, 석사과정 수료자 6명, 석사과정 재학생 3명이다.

내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은 1992년 11월 9일부터 1993년 4월 26일까지 해당 학교 학생생활 연구소에 상담을 받으러온 내담자 49명(남자 22명, 여자 27명)이었다. 내담자의 연령층은 18세 ~ 24세(mdn=22)이며, 학년분포는 1학년 7명, 2학년 10명, 3학년 13명, 4학년이 17명이었다. 상담을 신청하게 된 문제영역은 학업이나 학교문제 5명, 지능 및 사고방식문제 3명, 진로 및 적성문제 7명, 성격, 행동, 습관의 문제 26명, 가치관, 삶의 의미문제 1명, 이성 및 성문제 4명, 친구혹은 선후배문제 5명, 가족, 친지문제 7명, 정신건강 또는 건강문제 14명이다.¹⁾

자료수집

1992년 11월 9일부터 1993년 4월 26일까지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첫번째 상담회기를 제외하고, 매 상담회기가 끝난후 SEQ를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SEQ가 실시된 상담회기는 2번째 회기 ~ 24번째 회기(mdn=4)였으며, 마지막으로 SEQ가 실

시된 상담회기는 3번째 회기 ~ 26번째 회기(mdn=8)였다. 질문지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상담자와 내담자의 영문 기호와 날짜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총 165회기였다. 23명의 상담자가 1명 ~ 5명(mdn=2)의 내담자를 맡았으며, 49명의 내담자는 2회기 ~ 12회기(mdn=3)의 상담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는 각 상담자가 두명 이상의 내담자를 맡고, 각 내담자와 두번 이상의 상담회기를 가진 복수사례-다회기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수집된 사례 165회기중 108회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상담자는 10명이며 각 상담자는 2명 ~ 4명(mdn=2)의 내담자를 맡았다. 분석에 포함된 내담자는 28명으로 각 내담자는 2회기 ~ 12회기(mdn=3)의 상담시간을 가졌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문제를 위해 분석되는 방법은 요인분석, 변량원 분석(component-of-variance analysis), 상관분석이며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상담자가 한 내담자 이상을 맡고 있고, 맡은 내담자와 한번 이상의 회기를 가지는 상담현장은 枝分 설계(nested design)와 유사하다. 즉 내담자들은 각 상담자에게서 가치를 쳐 나온 것 같고(지분되었고), 각 회기들은 각 내담자들에게서 가치를 쳐 나온 것 같다. 따라서 문항 y1의 점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상담을 신청하게 된 문제영역의 구분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의 상담신청서 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내담자들은 2개 이상의 항목에도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y(1)_{ijk} = CO_i + CL_j(i) + SE_k(ij)$$

$y(1)_{ijk}$; 상담자 i , 내담자 j , 회기 k
인 경우 1번 문항점수

CO_i ; i 번째 상담자의 효과

$CL_j(i)$; i 번째 상담자의 j 번째 내담자의 효과

$SE_k(ij)$; i 번째 상담자의 j 번째 내담자의 k 번째 회기의 효과

다시 말하자면, 각 회기점수는 상담자에 의한 효과와 내담자에 의한 효과, 그리고 회기의 효과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각 회기점수를 독립된 것으로 분석한 기존의 방법(오경희, 1987; 최윤미, 1986; Stiles, 1980)은 세 변량원-상담자, 내담자, 회기에 의한 변량원-이 모두 혼합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회기영향력의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쌍에 의한 주효과를 제거한 후 문항간 잔차상관행렬(residual correlational matrix)로 요인분석을 하였고, 상관분석도 한 상담자와 어떤 내담자가 짝지어짐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잔차지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잔차상관행렬과 잔차지수는 SAS의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얻었다.

변량원 분석이란 회기평정 지수(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각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량원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으로 회기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량원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Howard, Orlinsky, & Perilstein, 1976). 분석은 SAS의 Nested procedure를 이용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결과

순수한 회기영향력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 쌍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고 잔차상관행렬을 구하여 요인분석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요인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varimax로 회전시켰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나온 바와 같다.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상담시간 평가부분(이번 상담시간은---)의 경우 상담자 평정에서는 각각 전체 변량의 44.36%, 19.53%(전체 63.89%), 내담자 평정에서는 50.25%, 13.79%(전체 63.89%)를 설명하는 두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상담직후 정서부분(상담이 끝난---)도 상담자 평정에서 각각 전체 변량의 39.59%, 19.63%(전체 59.22%), 내담자 평정에서 39.43%, 18.51%(전체 57.93%)를 설명하는 두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varimax 회전후에 요인구조를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 평정에서 대체로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상담시간 평가부분에서는 요인의 크기가 달리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내용을 살펴볼때 상담시간 평가부분에서 상담자의 요인 1과 내담자의 요인 2는 상담회기의 '깊이'를 나타내며, 상담자의 요인 2와 내담자의 요인 1은 상담회기의 '순조로움'을 나타낸다. 상담직후 정서부분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요인 1은 상담직후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며, 요인 2는 상담직후의 '각성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판 SEQ Form 4(Stiles, 1989)와 동일한 회기 영향력의 차원을 한국판 SEQ Form 4가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Stiles와 Snow(1984b)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서 모두 깊이가 첫번째 요인으로 나타

표 1. SEQ의 요인분석 결과

	상 담 자			내 담 자		
	요인1	요인2	Communality	요인1	요인2	Communality
이번 상담시간은-----						
나빠-좋아 2)	.51770	.45247	.472738	.54321	.52837	.574257
안전-위험	-.12801	.65972	.451612	.62093	.49721	.632767
힘들-쉬워 S3)	.27431	.70888	.577764	.84209	.01463	.709336
가치有-無 D4)	.76126	.38629	.728739	.25196	.75655	.635853
피상-깊이 D	.87520	.07289	.771281	.22729	.67022	.500859
맘편-긴장 S	.14300	.72613	.547711	.89190	.14813	.817434
언짢-즐거 S	.32633	.73158	.641705	.62130	.33848	.500578
가득-비어 D	.83348	.30422	.787237	.54921	.60872	.672169
약 - 강 D	.85962	-.01473	.739155	-.00130	.70733	.500323
특별-보통 D	.81594	.00380	.665772	.13678	.77233	.615209
거칠-매끄러 S	.02090	.75670	.573039	.83007	.13588	.707486
편안-불편 S	.21816	.81387	.709979	.84894	.31278	.818530
Eigenvalue	5.3226	2.34412	7.666733	6.02987	1.65493	7.684802
천체변량에 대한 비율	44.36	19.53	63.89	50.25	13.79	64.04
상담이 끝난 바로 지금 나는 (마음이)						
기쁘-슬프 P5)	.78101	.03694	.611335	.73765	-.06450	.548287
속상-만족 P	.83106	.05988	.694252	.81673	-.17110	.696322
생동-덤덤 A6)	.78660	.34232	.735927	.77822	.12646	.621621
모호-분명 P	.70812	.28021	.579953	.73146	-.17258	.564814
잔잔-흥분 A	.10984	.68462	.480767	-.26569	.72890	.601886
자신-두렵 P	.70450	-.19497	.534333	.78512	-.08620	.623844
캔다-졸린	.66290	.37027	.576542	.67330	-.05728	.456616
정답-싫게 P	.60873	-.19512	.408622	.75994	-.10593	.588725
느리-빠르 A	.22268	.84702	.767039	.12580	.71457	.526440
편다-고요 A	.11090	.78843	.633916	-.09730	.85788	.745430
몰입-떠나	.74342	.13856	.571873	.58125	-.11971	.352179
조용-들뜬 A	-.19644	.68796	.511872	-.15911	.77498	.625914
Eigenvalue	4.75102	2.35541	7.106429	4.73145	2.22062	6.952077
천체변량에 대한 비율	39.59	19.63	59.22	39.43	18.51	57.93

2) 각 문항의 형용사는 결과표에 제시하기 위해 줄인말이다. 원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3) S는 영어판 SEQ Form 4의 순조로움 문항(Stiles, 1989)

4) D는 영어판 SEQ Form 4의 깊이 문항(Stiles, 1989)

5) P는 영어판 SEQ Form 4의 긍정적 정서 문항(Stiles, 1989)

6) A는 영어판 SEQ Form 4의 각성도 문항(Stiles, 1989)

6) A는 영어판 SEQ Form 4의 각성도 문항(Stiles, 1989)

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평정에서는 깊이가 첫번째 요인으로, 내담자 평정에서는 순조로움이 첫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담시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담자에게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깊이가 중요한 차원으로 작용하지만, 내담자에게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조로움이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판 SEQ Form 4(Stiles, 1989)에서는 요인지수 계산에서 제외된 안전했다-위험했다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서 순조로움 요인에 높게 부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이 상담자에게서는 적은 정도이지만 깊이요인에 부적으로 부하되었고(-.12801), 내담자에게서는 깊이요인에 비교적 높은 부하량(.49721)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내담자의 경우 안전한 상담시간이 순조로운 동시에 깊이있게 느껴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상담직후 정서부분에서는 영어판 SEQ Form 4에서 각성도를 나타내는 생동감을 느낀다-덤덤하다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요인에 포함되었으며, 점수계산에서 제외되는 켄다-졸린다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이들 문항이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서 긍정적인 정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는 번안된 문항내용이 미국과 다르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상담자 평정과 내담자 평정 모두에서 요인가(factor loading)가 .60 이상인 문항을 해당요인의

문항으로 선택하되, 영어판 SEQ Form 4에서 제외되었던 문항(안전했다-위험했다/켄다-졸린다)과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문항(생동감을 느낀다-덤덤하다)은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SEQ의 각 지수는 다음 문항의 평균점수로 계산하였다.

깊 이 (5문항) : 가치있었다-가치없었다,
 피상적이었다-깊이있었다,
 가득찼다-비었다,
 약했다-강했다,
 특별했다-보통이었다

순조로움 (5문항) : 힘들었다-쉬웠다,
 마음편했다-긴장되었다,
 언짢았다-즐거웠다,
 거칠었다-매끄러웠다,
 편안했다-불편했다

긍정적 정서 (5문항) : 기쁘다-슬프다,
 속상하다-만족하다,
 모호하다-분명하다,
 자신있다-두렵다,
 사람이 정답게 느껴진다-
 사람이 싫게 느껴진다

각 성 도 (4문항) : 잔잔하다-흥분된다,
 느리다-빠르다,
 웅다-고요하다,
 조용하다-들뜬다

이렇게 해서 얻은 SEQ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 일관성(Cronbach α)은 표 2와 같다.

변량원 분석결과

SEQ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내담자, 회기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알아 보기 위

표 2. SEQ 지수의 평균, 표준편차, 내적 일관성(Cronbach α)

상담시간 평가요인	평균 (상담자/내담자)	표준편차	내적 일관성(Cronbach α)
깊이	4.64/ 4.73	1.05/ 1.07	.88/.84
순조로움	4.52/ 4.77	1.07/ 0.87	.85/.90
긍정적 정서	4.79/ 4.79	0.87/ 1.05	.78/.89
각성도	3.63/ 3.47	0.98/ 0.98	.80/.78

해, 이들 세 변량원(상담자, 내담자, 회기)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즉, 변량원 분석을 통해 SEQ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징(상담자 기여도)과 내담자의 개인적인 특징 뿐 아니라 내담자들에 따라 변화하는 상담자의 다른 접근(내담자 기여도), 그리고 순수한 회기의 변화로 인한 것(회기 기여도)의 비율을 알 수 있다. 변량원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세 변량원(상담자, 내담자, 회기)의 비율 (%)

	상담자의 변량	내담자의 변량	회기의 변량
깊이			
상담자 평정	0	3.90	96.10
내담자 평정	14.00	17.16	68.84
순조로움			
상담자 평정	2.37	12.29	85.35
내담자 평정	0	24.20	75.80
긍정적 정서			
상담자 평정	0	11.96	88.04
내담자 평정	8.00	28.69	63.31
각성도			
상담자 평정	6.31	13.60	80.08
내담자 평정	0	24.49	75.51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상담회기 평정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량원중에서 상담자의 변량은 0 ~ 14.00%(평균 3.83%), 내담자의 변량은 3.90 ~ 28.69%(평균 17.03%), 회기의 변량은 63.31 ~ 96.10%(평균 79.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담자나 내담자의 변량보다 회기의 변량이 더 높게 나온 결과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이나 반응경향성보다는, 회기 자체의 차이가 상담회기 평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EQ가 상담자나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회기마다 변화하는 어떤 것을 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회기들은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에 변량원 분석을 한 결과(Howard & Orlinsky, 1976; Mintz et al., 1971; Stiles & Snow, 1984a; Dill-Standiford et al., 1988)와 일치한다. 회기간의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응답 기준이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진전과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포함하는 것이다(Stiles, 1979).

상호상관 분석

각 회기에서 얻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SEQ 지수들의 상관분석은 상담자-내담자 쌍에 의한 변량을 제거한 SEQ 잔차(residual) 지수를 구하여 상관분석하였다. 먼저 SEQ 지수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온 바와 같다.

표 4 SEQ 지수간의 상호상관 분석

	깊이 (상담자/내담자)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순조로움	.39***/ .51***		
긍정적정서	.63***/ .78***	.74***/ .64***	
각성도	.45***/-.14	-.18 /-.61***	15/-.25**

n=108, ** p<.01, *** p<.001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SEQ 지수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이와 순조로움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상담자 $r=.39$, $p<.001$; 내담자 $r=.51$, $p<.001$)이 나왔는데, 이는 깊이있다고 느끼는 상담은, 깊이없는 상담보다 순조롭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깊이와 순조로움의 상관이 다른 요인간의 상관에 비해 낮은 상관이긴 하지만 Stiles와 Snow(1984a)의 연구에 비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깊이있는 상담과 순조로운 상담이 미국에 비해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상담자($r=.39$)보다 내담자($r=.51$)의 경우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깊이는 상담자에게는 상담직후 정서 요인인 긍정적 정서($r=.63$, $p<.001$), 각성도($r=.45$,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담자에게는 긍정적 정서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r=.78$, $p<.001$)을 보였다. 내담자의 경우 깊이와 긍정적 정서의 상관은 상담자보다 더 높은 상관을 가지며, Stiles와 Snow(1984a)에 비해서도 매우 큰 상관이다. 즉 깊이있는 상담후에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은 상담자보다 내담자에게 많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의 경우 순조로움과 각성도가 유의미

한 부적 상관($r=-.61$, $p<.001$)을 나타냈다. 이는 내담자의 경우 순조롭지 못하고 거칠고 힘든 상담에서 각성된 느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가 순조로운 상담 후에 각성된 느낌을 갖는다는 Stiles와 Snow(1984a)의 연구결과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내담자의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r=-.25$, $p<.01$)이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내담자의 경우 순조로운 상담후에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긍정적으로 느끼면 각성도가 떨어지고, 따라서 순조로운 상담 후에 덜 각성된다. 반면 상담자의 경우 각성도가 깊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45$, $p<.001$)을 보이고 있어 상담자는 깊이있는 상담후에 각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성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각성도 요인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상담자의 경우는 깊이가 상담직후의 느낌을 잘 설명하며, 내담자의 경우는 순조로움이 상담직후의 느낌을 잘 설명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상담자에게는 깊이가, 내담자에게는 순조로움이 제 1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SEQ 지수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상담자-내담자의 SEQ 지수 상관분석

내담자 평정	상담자 평정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정서	각성도
깊이	.29**	.16	.31**	.15
순조로움	.05	.24*	.19*	-.14
긍정적 정서	.25**	.14	.26**	.11
각성도	.02	.05	-.00	-.04

n=108, * p<.05, ** p<.01,

표 5에 나타난 바를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깊이($r=.29$, $p<.01$), 순조로움($r=.24$, $p<.05$), 긍정적 정서($r=.26$, $p<.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에서 일치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성도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성도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된 평가를 내리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각 지수간 상호상관에서 상담자는 깊이있는 상담후에 각성된 느낌을 가지며, 내담자는 순조롭지 못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상담에서 각성된다는 결과가 말해 주듯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성도가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성도는 같은 차원의 회기평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회기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문형춘(1993)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상담자의 긍정적 정서와 내담자의 깊이($r=.39$, $p<.01$)와 순조로움($r=.19$, $p<.05$)

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어느 특정 회기에서 상담자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상담시간을 내담자는 깊이있고 순조롭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상담자와 내담자가 긍정적 정서 평정에 일치된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때 상담자의 긍정적 정서가 다른 SEQ지수에 비해 내담자의 회기 평정을 잘 예언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상담회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상담후에 느끼는 상담자 자신의 긍정적 정서에 근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각성도는 다른 요인과 전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각성도가 상대방의 다른 회기평가의 차원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SEQ가 측정하는 회기영향력의 차원이 영어판 SEQ Form 4와 동일하게 상담시간 평가부분의 깊이와 순조로움, 상담직후 정서부분의 긍정적 정서와 각성도를 보이고 있다. 단, 상담자에게서는 깊이가 첫번째 요인으로, 내담자에게서는 순조로움이 첫번째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시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담자에게는 깊이가 중요한 차원으로 작용하지만 내담자에게는 순조로움이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요인구조를 볼때 영어판 SEQ Form 4와 몇가지 차이점은 있었으나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서 각성도에서 한 문항이 제외된 것 외에는 동일한 문항들로 요인이 구성되었다.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내담자, 회기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원을 분석한 결과, 상담자나 내담자의 변량보다 회기의 변량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 특성의 차이나 내담자의 개인적인 특징과 반응경향성, 내담자에 따라 달리 택하는 상담자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는 회기평정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으나, 회기마다 변하는 회기영향력의 차이가 회기평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회기는 동질적이지 않으며, SEQ가 회기마다 변화하는 어떤 것을 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이전의 변량원 분석 연구(Stiles & Snow, 1984a; Dill-Standiford et al., 1988)에 비해 상담자나 내담자의 기여도는 적고, 회기 기여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가 선행 연구에 비해 이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자 기여도가 적은 것은 상담자 특성의 차이가 선행연구에 비해 회기평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SEQ 지수간의 상관분석 결과, 대부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깊이와 순조로움은 다른 요인간의 상관에 비해 낮은 상관이기는 하지만, Stiles(1980)에 비해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의 경우 깊이 있는 상담과 순조로운 상담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내담자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자 경우는 깊이가, 내담자의 경우는 순조로움이 상담직후의 느낌-긍정적 정서와 각성도-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인분석에서 상담자에게는 깊이가, 내담자에게는 순조로움이 첫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다. Stiles(1980)도 깊이가 상담자의 경험을 일차적으로 반영한다면, 순조로움이 내담자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내담자의 경우 상담이 순조롭지 않고 상

담후에 부정적으로 느낄때 각성되는 반면, 상담자의 경우 깊이있는 상담후에 각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성도가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SEQ 지수의 상관분석 결과,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각성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각 지수간 상호상관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성도가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상담후에 상담자가 느끼는 긍정적 정서는 다른 SEQ지수에 비해 내담자의 회기 평정을 잘 예측해 준다.

본 연구는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상담연구 중 심리측정 분야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최근 상담과정-성과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그 변인측정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상담현장의 특수성과 사례수집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것이다. 각 상담회기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연속적인 것이며, 설사 다른 상담자와 내담자쌍에서 얻어진 자료라 하더라도 각 상담회기의 측정치는 순수한 상담회기의 특성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는 각 회기마다 얻어진 측정치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다름으로 인해 다른 변인-이를테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담현장의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분석방법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상담의 심리측정 분야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SEQ의 국내활용을 위한 타당화 연

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EQ는 현재 두 연구자(오경희, 1986; 최윤미, 1987)들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상담현장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요인분석만으로 타당화 과정을 밟았다. 이는 그들의 연구 목적이 SEQ의 타당화에 있지 않고 SEQ를 회기성과 변인으로 보고, 다른 과정변인과의 관계를 보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SEQ의 타당화 연구에 목적을 두었으며, 보다 풍부한 타당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해 SEQ의 각 지수들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자세히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관분석 결과, 깊이와 순조로움이 Stiles(1984a)에 비해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에게서는 깊이가, 내담자에게서는 순조로움이 상담직후 정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치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각성도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서 같은 차원의 느낌을 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자의 긍정적 정서가 다른 SEQ지수에 비해 내담자의 회기 평정을 잘 예언해 주므로 상담자가 상담회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상담후에 느끼는 상담자 자신의 긍정적 정서에 근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관 분석에 의해 각 지수들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각 지수가 주는 의미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그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SEQ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으나, 자료수집 과정이 얼마나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적게는 2회, 많게는 12회까지 매 회기가 끝날 때 마다 동일한 SEQ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응답자가 관습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문항마다 긍정적인 형용사와 부정적인 형용사의 배열 방향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임의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수집이 보다 신뢰롭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매 회기마다 회기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변량원 분석결과도 이러한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회기 영향력의 변화라는 준거를 설정하여, 상담시간 평가와 상담 직후 정서에서 회기간에 차이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각기 변량원 분석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신뢰로운 타당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기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만큼 많은 회기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준거집단을 설정할 수가 없었다.

셋째, 회기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내담자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회기 영향력의 차원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모델에는 시간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즉 연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각 회기에서 얻어진 측정치는 회기 자체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서로에 대한 친밀감, 또는 질문지 응답에 대한 연습효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기평정 차이에 기여하는 시간의 효과를 알아보고, 시간 효과를 제거한 후의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요인분석 결과, 영어판 SEQ Form 4와 일관된 요인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에서도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다른 결과를 나타낸 문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 문항의 내용이 문화적으로 다르게 전달되어서인지 혹은 번안과정에서 다른 의미로 번안되어서인지 그 이유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각성도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다섯째, 변량원 분석 결과, 상담자나 내담자의 기여도보다 회기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SEQ가 상담자나 내담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덜 받고, 회기의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SEQ가 변화하는 회기의 무엇인가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SEQ가 과연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는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깊이가 상담자의 효율적인 개입을 나타내고 순조로움이 내담자의 고통수준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과연 SEQ로 측정되는 회기영향력의 차원인 깊이, 순조로움, 긍정적 정서, 각성도가 재고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구인타당도를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신덕(1991). 상담과정에서의 지배성과 상담성파관 의관계: 두 사례 시계열 종단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인규(1992). 상담상호작용의 사례별 시계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정욱(1990). 초기상담에서 화제 결정과 상담 효율 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문형춘(1993). 초기 상담에서 내담자-상담자 반응 연계유형에 따른 즉시적 성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혜경(1991).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 양식과 상담효율성 평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오경희(1986).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 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동귀(1993). 초기 상담면접에서 상담자 반응의도/내담자 주관적 반응간의 연계단위와 상담회기 효율성 지각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은정(1991). 상담자의 자기관여반응과 내담자의 자아개념이 상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윤미(1987).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홍경화(1991).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 불안이 상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orrigan, J. D., & Smith, L. D.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4-75.
- Dill-Standiford, T. J., Stiles, W. B., & Rorer, L. G. (1988). Counselor-Client Agreement on Session Impa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7-55.
- Elliott, R. (1985). Helpful and Nonhelpful Events in Brief Counseling Interviews: An Empirical Taxnom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07-322.
- Friedlander, M. L., Thibodeau, J. R., &

- Ward, L. G. (1985). Discriminating the "good" from the "bad" therapy hour : A study of dyadic interaction. *Psychotherapy*, 22, 631-642.
- Greenberg, L. S. (1986). Change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9.
- Hill, C. E., Helms, J. E., Tichenor, V., Spiegel, S. B., O'Grady, K. E., & Perry, E. S. (1988). Effects of therapist response modes in b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22-233.
- Howard, K. I., Orlinsky, D. E., & Perilstein, J. (1976). Contribution of therapists to patients' experiences in psychotherapy : A components of variance model for analyzing process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520-526.
- Larsen, D. L., Attkinson, C. C., Hargreaves, W. A., & Nguyen, T. D. (1979). Asse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 197-207.
- Nocita, A., & Stiles, W. B. (1986). Client introversion and counseling session impa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35-241.
- Orlinsky, D. E., & Howard, K. I. (1975). *Varieties of psychotherapeutic experience: Multivariate analyses of patients' and therapists' report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Rice, L. N., & Greenberg, L. S. (1984). *Patterns of Change: Intensive analysis of psychotherapy process*. New York: Guilford.
- Rosen, A., & Proctor, E. K. (1981). Distinctions between treatment outcome and their implications for treatment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418-425.
- Russell, J. A. (1979). Affective space is bipola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45-356.
- Stiles, W. B. (1980).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psychotherapy ses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176-185
- _____. (1989). Use of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Manuscript, Miami University.
- Stiles, W. B., & Snow, J. S. (1984a).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viewed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12
- _____. (1984b). Dimensions of psychotherpay session impact across cli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59-63.
- Stiles, W. B., Shapiro, D. A., & Firth-Cozens, J. A. (1988). Do sessions of different treatments have different impa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91-396.
- _____. (1990). Correlations of session evaluations with treatment

outcom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13-21.

Stiles, W. B., Tupler, L. A., & Carpenter, J.C. (1982). Participants' perceptions of self-analytic group sessions. *Small Group Behavior*, May, 237-254.

A Validation Study of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

Sang-Hee Lee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 originally developed by Stiles & Snow (1984, 1989). The data were gathered at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s of five universities in Korea. From total number of 165 sessions, 108 sessions (10 counselors' and 28 clients' session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on residual correlation matrices after the main effect of dyads (counselor-client pairs) had been removed. The results showed two distinct factors, called depth and smoothness at session evaluation part, and two distinct factors, called positivity and arousal at post-session affect part. At session evaluation part, however, depth was considered as first factor to counselors, smoothness to clients. A 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s between the original SEQ form 4 and the Korean version revealed the same but an omission of one item from the arousal dimension. Second, component-of-variance analyses showed that session-to-session variance was much greater than the counselor or counselor-client dyad vari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Q measures some changes that take place in counseling session rather than characteristics of counselors or clients. Third, correlation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residuals after removal of the main effect of counselor-client dyads. In each SEQ scales comparisons, depth and smoothness may not be distinct factors, especially for clients. It was also found that counselor and client interpreted arousal in different way. Counselors and clients were found to agree on depth, smoothness, positivity, except arousal. Counselor's perceptions of post-session positiv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three client's SEQ indexes except arousal. In other words, counselors' post-session positive mood were moderately predictive of client reactions.

< 부 록 >

상담시간 평가질문지

이 질문지는 방금 마친 상담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대조되는 단어가 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단어 쌍을 사용해서 이번 상담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치십시오.

날짜: 1992년 월 일 ID: _____

이번 상담시간은

나빴다	1	2	3	4	5	6	7	좋았다
안전했다	1	2	3	4	5	6	7	위험했다 (-)
힘들었다	1	2	3	4	5	6	7	쉬웠다 S
가치있었다	1	2	3	4	5	6	7	가치없었다 D(-)
피상적이었다	1	2	3	4	5	6	7	깊이있었다 D
마음편했다	1	2	3	4	5	6	7	긴장되었다 S(-)
언짢았다	1	2	3	4	5	6	7	즐거웠다 S
가득찼다	1	2	3	4	5	6	7	비었다 D(-)
약했다	1	2	3	4	5	6	7	강했다 D
특별했다	1	2	3	4	5	6	7	보통이었다 D(-)
거칠었다	1	2	3	4	5	6	7	매끄러웠다 S
편안했다	1	2	3	4	5	6	7	불편했다 S(-)

상담이 끝난 바로 지금 나는 (마음이)

기쁘다	1	2	3	4	5	6	7	슬프다 P(-)
속상하다	1	2	3	4	5	6	7	만족스럽다 P
생동감을 느낀다	1	2	3	4	5	6	7	덤덤하다 (-)
모호하다	1	2	3	4	5	6	7	분명하다 P
잔잔하다	1	2	3	4	5	6	7	흥분된다 A
자신있다	1	2	3	4	5	6	7	두렵다 P(-)
깁다	1	2	3	4	5	6	7	졸린다 (-)
사람이 정답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사람이 싫게 느껴진다P(-)
느리다	1	2	3	4	5	6	7	빠르다 A
뒸다	1	2	3	4	5	6	7	고요하다 A(-)
몰입되어 있다	1	2	3	4	5	6	7	떠나있다 (-)
조용하다	1	2	3	4	5	6	7	들뜬다 A(-)

S는 순조로움 문항, D는 깊이 문항, P는 긍정적 정서 문항, A는 각성도 문항
(-) 문항은 긍정적인 쪽이 높은 점수가 되도록 바뀌었다.